광주가 읽고 톡talk 하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강연·독서클럽 토크

다산의 효제사상,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

부모 자식간 소통의 중요성 깨달아

'한 책'으로 하나되는 '세대 공감'

"효제(孝悌)를 비롯한 다산의 가르침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앞으로도 이런 토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박수현 전남대사학과 2학년)

"근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검소해야 한다는 말이 맘에 들었다. 명품과 브랜드에 집착하는 요즘 세대가 한번쯤 되새겨봐야 할 내용이다."(김경숙 광산중학교 사서)

"요즘 학생들은 책을 안 읽는데, 토론을 듣고 보니 책을 사서 읽어보고 싶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시간이었다."(김도연 전남대 경영학부 4학년)

깊어가는 가을, 책 한 권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벽을 허물고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대학교가 전개하고 있는 범시민독서운동 '광주가 읽고 톡talk하다'(이하 '광주톡') 1차 토론회 및 작가 초청강연회가 23일 전남대 도서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열렸다.

투표를 거쳐 올해 함께 읽는 책으로 선정된 책은 다산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였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학생, 교수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해 '광주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중간고사를 앞두고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적지 않아, 독서토론회가 또다른 수업의 연장이라는 의미를 실감케 했다.

전남대 사학과 이강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모두 4개의 독서토론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코레일광주 독서 클럽 '워크스마트'를 이끌고 있는 전삼수(48)씨, 한전서광주지사 '맛있는 책' 대표 최미희(49)씨, 문산중 '문산골 책사랑'에서 활동하는 최영순(47) 주부, 상일여고 '독토논토'의 우지선(18) 학생이 토론에 나섰다.

'워크스마트' 전삼수씨는 "직장 내에서 자발적인 책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전남대 '광주톡' 행사에 참여해 다산의 사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산골 책사랑' 최영순 주부는 "문산중 출신 학부모와 재학생들이 주축이 돼 매달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뿐만 아니라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공선옥) 등도 읽고 있다. 회원들은 '한책톡'에서 1등을 해 유럽여행을 가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활동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창비 간) 편역을 맡았던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전 국회의원)의 '효제와 용기' 주제 강연과 전남대 윤리교육과 김기현 교수의 '가족이 출발이다'라는 발제가 있었다.

박석무 이사장은 "현재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자살률과 실업률은 높고 윤리는 땅에 떨어졌다. 이러한 때에 다산의 효제 사상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 7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광주시민들이 올해 함께 읽을 책으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선정했다. 또한 '광주톡'의 활성화를 위해 57개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반도서 10권도 선정해 '책읽기 붐'을 조성하고 있다.

2차 토론회는 11월 13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독서와 근검'을 주제로 전남대 사학과 김병인 교수가 발제하고,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장우권 교수의 사회로 독서 클럽 '도담도담' 유용상(59,)씨, 지산중학 부모독서회 최문숙(45)씨, 코레일광주 '워크스마트' 윤상호(39)씨, 상일여고 '독토논토' 김혜연(18) 학생이 토론에 참석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3일 전남대 도서관에서 열린 '광주톡'토론회에 참석한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이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수민 작

'도시를 보다'

한국현대사진가협 24~30일 갤러리D

사진예술의 대중화와 예술적 영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현대사진가협회(이사장 황인숙)가 광주의 도시 건축과 이미지를 통해 광주의 공공디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전시를 마련했다.

한국현대사진가협회는 24~30일 갤러리D(본전시)에서 '도시를 말하다 광주2013, 도시건축-어울림과 소통'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강지원, 김덕일, 최영화(회장), 김수영, 김영규, 김진우, 이춘남, 최정임, 황인숙씨 등 모두 29명의 회원들은 광주 지역 건물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광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광주라는 도시의 인상과 기억을 정형화된 이미지가 아닌 개개인의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도시건축, 도시디자인 그리고 건축 예술 등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했다. 한국현대사진가협회는 같은 기간 우영갤러리에서 '지역문화재를 말하다'를 주제로 특별전도 함께 연다. 문의 062-222-8011(갤러리D),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악 흥, 재즈 열정

오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김광복

JC Clark

신명난 국악과 재즈의 어울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김광복)이 재즈그룹 'Taste of Jazz'를 초청, '국악, 재즈를 만나다'를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24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피아니스트 JC Clark가 이끄는 Taste of Jazz'는 트럼펫의 콘스탄틴 드로비코, 클라리넷의 안톤 보고모로프 등 8인조로 구성된 재즈 그룹이다.

이날 연주에서는 듀크 앨링턴의 '술과 장미의 나날', 마일스 데이비스의 '카라반', 폴 데스몬드의 'Take five', 냇킹 콜이 불러 인기를 모았던 'Almost like being in love' 등 유명 재즈 넘버와 영화 '시네마 천국' 주제곡, 삼바 리듬을 만끽할 수 있는 'One Note Samba' 등을 연주한다.

피날레 무대는 민요와 재즈와의 만남이다. 레퍼토리는 '뱃노래'와 '아리랑'이다. 가수 신수란과 이슬이 협연한다.

문의 062-512-53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미술제' 하루씨 대상

11월4일까지 수상작 전시회

하루 작 '맛있는 산수'

대인예술시장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하루(김형진·34·동양화)씨가 제1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상금 1000만원) 작가로 선정됐다. 우수상과 신진작가상에는 박인선(여·32·복합매체), 이미성(여·29·영상)씨가 각각 뽑혔다.

(주)광주신세계는 최근 제1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작품 심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3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하루씨는 동양회화의 양식과 준법을 단순히 가볍게 전용하는 수준을 넘어 탁월한 표현능력으로 동양화의 산수와 음식물의 다양한 형상을 하나의 화면에 구성했다"고 대상 작가 선정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광주·전남지역의 현실과 삶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조사한 것을 다양한 매체로 집약해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이씨는 영상을 활용해 이미지를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했다.

수상작품들은 다음달 4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이번 미술제에는 91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시상식은 30일 오후 5시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배주형 바이올린 귀국 독주회 26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배주형 귀국독주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헨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6번',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드뷔시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이다.

전북대를 거쳐 프랑스 에콜노르말 음악원 등에서 수학한 배씨는 Cachan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석졸업했다. 유학중 FRANCE Val de bievre orchestra 수석단원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쳤다.

피아노 반주는 김연씨가 맡는다. 문의 010-9212-97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